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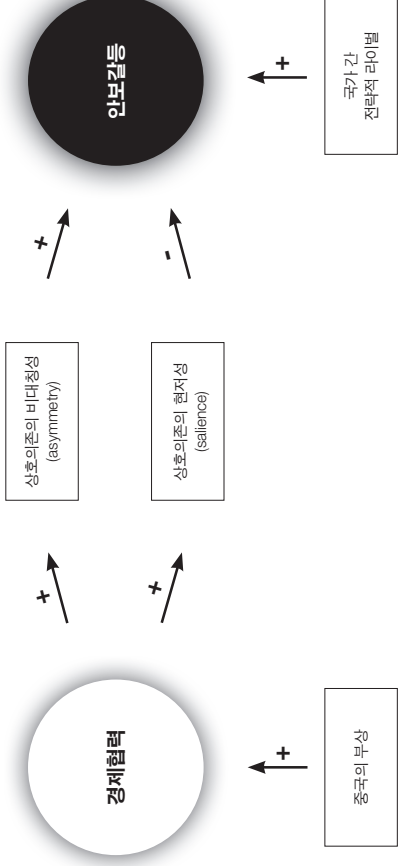
아시아 패러독스?

—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Asia's Paradox? — Economic Cooperation and Security
Conflict in East Asia

정성철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 패러독스?



“아시아 패러독스”, 즉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지속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심화가 각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여 국가 간 안보갈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은 해외 경제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증대는 안보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최근의 연구는 현재의 경제협력 수준과 별도로 정책결정자의 향후 경제협력 수준에 대한 전망이 국가 간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안보갈등 수준이 높으며 경제의존의 “현저성(salience)”은 높으나 “대칭성(symmetry)”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990년대부터 상호의존의 “현저성”은 증가하지만 “대칭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 주변국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안보갈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협력의 현저성과 대칭성은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된 기대 변수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협력 이외에 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모든 지역에서 안보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협력 관련 변수는 탈냉전기에 들어서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안보갈등과 경제협력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안보와 경제, 라이벌 변수 간 관계에 있어서 차별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Asia's Paradox, the disconnect betwee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politic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While liberalists argue that economic interdependence contributes to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creating common and expand-

ed interests, realists maintain that economic cooperation often makes one state more concerned about security by making itself sensitive and vulnerable to foreign states. Some recent studies insist that not current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but expect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shapes leader's decision on foreign affairs. East Asia currently shows higher levels of security conflict and economic cooperation than other regions. The levels of "salience"(degre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asymmetry"(unbalance in economic interdependence) in East Asia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1990s,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other East Asian sta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es of states from 1950 to 2000, the two economic cooperation variables, salience and symmetry, have negative effects on conflict occurrence, while the variables of expectations of salience and symmetry do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Aside from the salience and symmetry which have more effects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existence of strategic rivalry has positive effects on conflict occurrence in East Asia as well as other regions. In short, East Asia is distinctive in experiencing high levels of both security conflict and economic cooperation, but it shows normal causal relations between economy/rivalry and security.

KEY WORDS 안보갈등 security conflict, 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취약성 vulnerability, 현저성 salience, 대칭성 symmetry, 무역 trade, 전략적 라이벌 strategic rivalry

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수준은 어떠하며 양자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실제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겪는 특수성을 보이는가?

본 논문은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현상이 국제안보 연구에 주는 함의를 찾고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전망하고자 한다. 경제와 안보의 인과관계는 국제관계 연구의 대표적 논쟁 대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개념과 논리를 고찰한 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사실 국가 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에 대한 이해 없이 향후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주의자들은 미중이 갈등의 조정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부상하는 도전국과 쇠퇴하는 패권국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1990년대 군사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으로 상징되는 양안 경협이 심화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켰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채 북한문제에 대한 숙제를 계속 안고 있다.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양국 관계는 보다 경색되었다. 이처럼 미중관계, 양안관계, 남북한관계, 북중관계에서 경제영역과 정치·안보영역의 관계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경제와 안보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국제안보 연구는 전쟁과 평화의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촉발해 왔다. 예를 들어, 월츠(Kenneth Waltz)는 핵확산이 공포의 균형을 통하여 전쟁 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핵 평화(nuclear peace)”론을 내세웠고, 세이건(Scott Sagan)은 핵확산이 관료정치와 예방전쟁, 오인과 사고로 인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Sagan and Waltz 2003[1995]). 민주평화론자들은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민주주의 국가의 신중함과 강인함이 민주주의 간 전쟁을 막는다고 주장하지만(Maoz and Russett 1993; Bueno de Mesquita 외 1999), 다른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민주평화론을 냉전평화론(Cold War Peace) 혹은 자본주의평화론(Capitalist Peace)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Farber and Gowa 1995; Gartzke 2007). 맨스필드(Edward Mansfield)와 스나이더(Jack Snyder)는 독재체제에서 제한된 민주화를 통하여 혼합체제(anocracy)에 이른 국가의 경우 지도자들이 강한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때문에 적대적 외교정책을 취한다고 주장하여 각광을 받았지만(1995, 2005), 동시에 연구 설계와 논증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Wolf 외 1996; Narang and Nelson 2009).

경제협력 및 안보갈등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자들과 현실주의

자들은 대립된 가설을 제시하면서 오랜 논쟁을 지속해 왔다. 자유주의자들이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interest)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실주의자들은 경제협력으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보다는 배신을 택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 협력이 제도화될 경우 국가는 배신으로 인한 단기이익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장기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고 협력을 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냉전기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협력보다는 갈등을 보였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 간 대립은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만을 부각하지만 국가는 사실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Grieco 1988).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보더라도 상대국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자국의 상대적 국력은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 더구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국가의 결정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sensitivity)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의 취약성 증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Waltz 1970).

이러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정리하면 경제협력의 ‘정도’와 경제협력의 ‘균형’은 안보갈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예상되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는 협력을 선호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현실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이 대칭적 균형을 이룰 때 국가는 배신 혹은 압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협력을 지속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접근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가 간 경제협력의 “현저성(salience)”과 “대칭성(symmetry)” 개념을 고안하고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Barbieri 2002). 흔히 현저성은 국가 간 무역의존의 정도를 의미하며, 대칭성은 국가 간 무역의존의 균형을 의미한다. 만약 두 국가의 무역량이 증가할 경우 현저성은 증가하지만 양국 경제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 대칭성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 소국은 경제협력이 심화될수록 상대적 대국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민감성의 증가가 반드시 취약성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적 소국이 상대적 대국과의 무역을 늘려간다고 해도 상대적 대국과의 무역을 쉽사리 대체할 만한 무역상대가 존재할 경우 민감성에 비하여 취약성은 낮을 수 있다.

한편, 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 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뿐 아니라 무역과 개방이 국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민감성과 취약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와 안보 관계를 국가쌍(dyad-level) 수준에서 분석했다면, 국가의 경제체제와 안보정책의 상관성에 대한 국가 수준(state level) 접근 역시 오랫동안 존재했다.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는 국가의 유형을 “무역 국가(trading state)”와 “정치·군사 국가(political/military state)”로 나누면서 후자는 정치·군사 국가가 군사행동을 통하여 영토 획득을 추구하지만 전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익 창출에 집중한다고 주장하였다(1986). 솔리전(Etel Solingen)은 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할 경우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자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보았다(1994). 또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균형정책 역시 국가의 경제개방 정도가 높을수록 제한적으로 취해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Papayoyanou 1997).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본주의 평화론 역시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회세력이 국가 내에 존재할 경우 이들 국가 사이의 갈등은 억제되거나 조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개방경제국가의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관심전환전쟁이론에 따르면 정치 혹은 경제불안정은 지도자로 하여금 국내 청중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국내 결집을 이루기 위하여 적대적 외교정책을 펼치거나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vy 1989; 정성철 2013). 만약 개방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금융위기 혹은 해외자본유출 등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해 사회불안을 맞이하게 되면 지도자는 공세적 외교정책을 통하여 다른 국가와 불화와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경제국가가 항상 다른 유형의 국가보다 협력을 우선시한다는 주장은 세밀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특히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요구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국가의 경우 정치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의 무력분쟁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14).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저강도 분쟁을 원하는 지도자는 무역국가가 고강도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타국의 도발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기대(expectation) 변수에 주목하면서 경제와 안보 관계를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배신은 단기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반복되는 협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장기 이익은 보다 매력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장 손에 쥌 수 있는 이익을 추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선호하는 이른바 가치의 절감(discounting) 효과로 인하여 장기이익은 자유주의자들의 예상보다 덜 매력적일 수 있다(Streich and Levy 2007). 한편, 코퍼랜드(Dale C. Copeland)는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s)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향후 무역관계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존재하면 국가는 적대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Copeland 1996, 2011). 일본의 경우 비록 미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하였지만 미국이 대일 경제제재를 시작하자 향후 경제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에서 진주만 공습을 선택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 따라서 일본의 미국 공격은 경제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를 나중에 감수하기보다 군사행동을 통해서 현재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예방 행동(preventive ac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퍼랜드의 무역기대이론은 상호의존이 안보갈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지도자는 향후 무역관계에 대한 전망에 따라 상호의존이 자산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무역기대와 국제분쟁에 관련된 경험적 논의는 소수의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분석에만 기초하고 있다.⁴ 다수 사례를 통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할 경우 정책결정자의 인식, 즉 무역관계에 대한 지도자의 전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적실성

(validity)과 신빙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측정의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지도자의 인식과 정향에 대한 변수를 고려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정치심리학 연구에서 실험을 통한 검증을 시도할 경우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문제가,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을 시도할 경우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문제가 발생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무역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에 대한 기대 변수를 제한적 방법이지만 측정을 시도하여 이들 변수가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⁴

III 경험적 분석

이 절에서는 동아시아의 안보갈등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동아시아 상호의존의 변화 양상을 무역관계의 현저성과 대칭성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본다.

1. 분석대상과 측정방법

본 연구는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를 6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골—으로 한정하고 이들 국가 사이에서 1950년부

4 코퍼랜드는 무역기대이론을 통하여 데탕트의 기원과 냉전의 종식,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설명하고 미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Copeland 1999, 2003, 2011).

터 2000년까지 존재한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모든 국가쌍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동아시아 국가쌍의 경우 전체 국가쌍보다 상대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무역정도와 분쟁발발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국경을 맞대거나 400마일 이하 바다를 사이에 두는 국가쌍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쌍은 총 9개—한국-북한, 한국-중국, 한국-일본, 북한-일본, 중국-북한, 중국-일본, 중국-대만, 중국-몽골, 일본-대만—이며, 전체 국가쌍의 수는 2000년 기준으로 541개이다(1950년 160개, 1960년 270개, 1970년 347개, 1980년 432개, 1990년 459개).

국가 간 안보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orrelates of War(COW) 프로젝트의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MI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Ghosn 외 2004). MID 데이터는 해당 연도의 특정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무력분쟁 행위를 네 단계—1) 무력위협, 2) 무력시위, 3) 무력사용, 4) 전쟁개시—로 나누어 코딩한다. 본 연구는 네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분쟁개시(MID onset)와 사망자를 포함한 분쟁개시(fatal MID onset)를 통하여 안보갈등의 수준변화를 살펴보았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헤그리(Håvard Hegret), 오닐(John R Oneal), 러셋(Bruce Russett)이 축적한 상호의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2010). 이들은 해당 연도에서 두 개의 국가 사이의 무역규모를 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trade dependence)를 측정하였다.⁵ 만약 두 국가(C1, C2)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일정한 차이가 존

재할 경우 양국의 무역규모는 동일하지만 C1이 C2에 대한 의존도와 C2가 C1에 대한 의존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⁵

$$\text{의존도1} = \frac{\text{C1과 C2 간의 무역규모}}{\text{C1의 GDP}} ;$$

$$\text{의존도2} = \frac{\text{C1과 C2 간의 무역규모}}{\text{C2의 GDP}}$$

앞서 언급한 양국의 경제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바비에리(Katherine Barbieri)의 조작적 정의를 따랐다(2002). 현저성 변수는 두 국가의 의존도를 곱한 값의 제곱근을 의미하고, 대칭성 변수는 1에서 양국의 의존도 차이를 제한 값이 된다. 현저성은 값이 클수록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칭성은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상호의존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현저성} = \sqrt{\text{의존도1} \times \text{의존도2}}$$

$$\text{현저성} = 1 - |\text{의존도1} - \text{의존도2}|$$

끝으로, 무역관계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5 무역의존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양국 간 무역량을 해당 국가의 총 무역량으로 나누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GDP로 나누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자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의존도보다 경제규모에 있어서 의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Gartzke and Li 2003).

해당 연도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 현저성과 대칭성의 변화에 따라 지도자가 향후 무역관계를 전망한다고 가정하였다. 현저성과 대칭성의 기대변수는 해당 연도의 값에서 5년 전 값을 제한 후 5년 전 값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기대변수 값이 클수록 지도자가 향후 현저성(혹은 대칭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기대변수 측정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경제제재 혹은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text{향후 현저성} = \frac{\text{현저성}_t - \text{현저성}_{t-5}}{\text{현저성}_{t-5}}$$

$$\text{향후 대칭성} = \frac{\text{대칭성}_t - \text{대칭성}_{t-5}}{\text{대칭성}_{t-5}}$$

2.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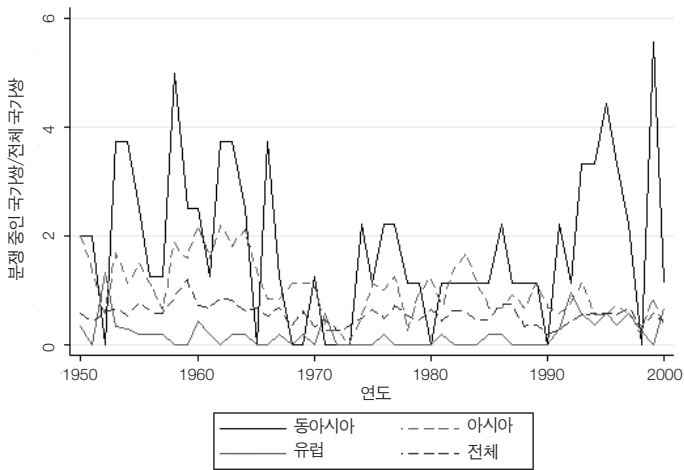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비교할 때 경제협력과 안보갈등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안보갈등 수준이 높다. 안보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서 분쟁 중인 국가쌍의 수를 전체 국가쌍의 수로 나눈 값을 비교하였다.⁶ 만약 전체 동아시아 국가쌍 9개 중 남북한이 무력분쟁을 겪고 있다면 동아시아의 해당 값은 1/9이 된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해당 지역의 안보갈등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국가쌍은 국경을 맞대거나 400마일 이하 바다를 사이에 두고 400마일 이하 떨어져 있는 두 나라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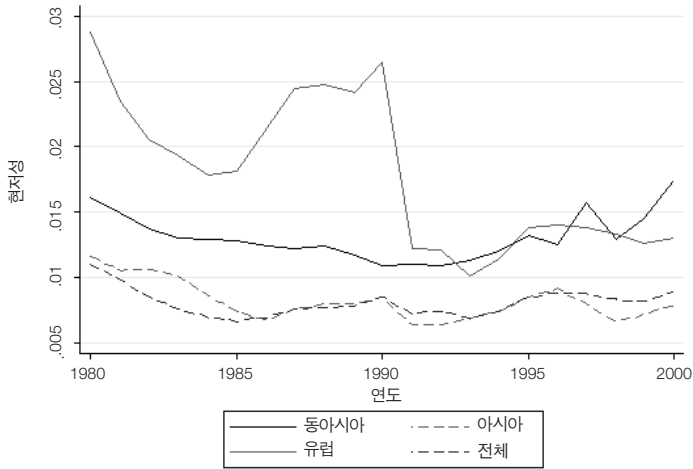
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전체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다. 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데탕트 시기부터 안보갈등 수준이 줄어들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데탕트 시기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서 냉전 초기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무역의존 현저성이 높다. 양국의 무역량을 각국의 국내총생산 값으로 나눈 현저성 변수의 증감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동아시아는 1980년대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2000년에 이르러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의존 정도를 보여준다(<그림 2>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안보갈등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경제협력의 현저성

참조). 아시아 국가쌍은 전체 국가쌍과 비슷한 수준의 현저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의 현저성은 1980년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소련의 해체와 신생국가의 등장 시기에 급감하여 현재는 동아시아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협력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무역의존 대칭성이 낮다.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의존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대칭성을 보인다(그림 3) 참조). 유럽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대칭성이 급락하였다가 1990년 초반부터 상승하여 전체 국가쌍 수준의 대칭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전체 국가쌍이 보이는 대칭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동아시아의 대칭성은 1980년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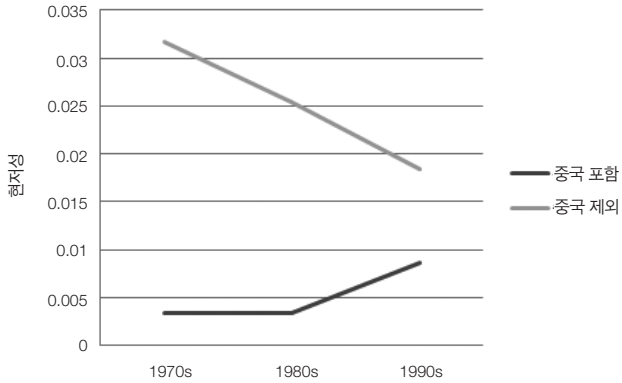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경제협력의 대청성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국가 간 무역관계의 대청성 추세가 거꾸로 된 U자형을 보인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무역의존은 심화되었지만(현재성 증가) 대청성은 악화(대청성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은 현재성 증가와 대청성 감소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과연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현재성과 대청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1970년대 이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한국-중국,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대만, 중국-몽골)과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국가쌍(한국-북한, 한국-일본, 북한-일본, 일본-대만)을 비교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은 1980년대부터 현재성이 증가한 반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쌍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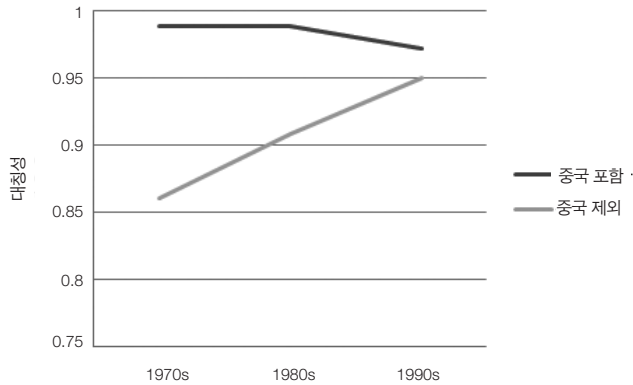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 동아시아 국가쌍의 현저성

저성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대칭성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가쌍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저성과 대칭성 변화 추세가 바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에서 재현되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교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모습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인과분석

그렇다면 과연 경제협력은 안보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협력의 현저성은 안보갈등을 감소시키고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은 안보갈등을 부추기는가? 경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동아시아 국가쌍의 대칭성

협력에 대한 기대는 안보갈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러한 경제협력 변수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지리적 조건과 별도로 안보갈등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1950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국가쌍에 대하여 '희귀 사건 로짓 분석(rare event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부록 1·2·3〉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첫째, 경제협력의 현저성과 대칭성은 무력분쟁을 감소시킨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의 정도, 즉 현저성이 증가할수록 안보갈등이 줄어든다고 보았으며, 현실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의 심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안보갈등

7 종속변수인 분쟁발발(Fatal MID)이 더미변수이고 발발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희귀 사건 로짓 분석(rare event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희귀 사건 로짓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King and Zeng 2001a; 2001b).

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력의 현저성과 대칭성 모두 무력분쟁 가능성은 줄이는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고강도 분쟁의 경우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하며 영향력의 정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록 1)의 모델 1과 2 참조). 한편, 경제협력 관련 변수만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포함한 통제변수들 중 국가 간 라이벌(*rivalry*)과 육상 국경(*border*)은 양의 영향을, 동맹(*ally*)은 음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러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모든 분쟁의 개시를 종속변수로 삼았을 때보다(모델 1) 고강도 분쟁의 개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모델 2) 커졌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과 전략적 라이벌이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앞서 살펴본 안보갈등 발발 통계분석을 지역별로 시도하였을 때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협력과 전략적 라이벌 변수가 다른 지역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록 2) 참조). 동아시아, 아시아,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 대하여 따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무역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은 음의 영향력을, 전략적 라이벌은 양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다만 이들 변수의 영향력 정도, 즉 계수의 절대값이 동아시아 모델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8 라이벌 변수는 양국의 지도자가 상대국을 “전략적 라이벌”(strategic rival)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톰슨(William Thompson)과 드레이어(David R. Dreyer)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Thompson and Dreyer 2012). 동맹 여부와 국경/거리는 Correlates of War(CoW) 프로젝트 데이터를, 민주주의는 Polity IV의 Polity Score를 활용하였다.

지역 혹은 전체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 두 변수, 수도 간 거리(*distance*)와 육상 국경(*border*)은 동아시아의 경우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탈냉전기 동아시아 안보불안의 기저에 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Friedberg 1993/94).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라이벌의 영향과 별도로 경제협력이 동아시아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무역의존 현저성과 대칭성에 대한 기대가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명확하다. 양국의 무역의존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현저성과 대칭성의 최근 변화 양상이 지도자의 무역에 대한 기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지난 5년 동안 현저성의 변화 정도와 대칭성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분쟁 개시를 종속 변수로 삼은 모델의 경우 ‘향후 현저성’(*saliency_exp*)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아주 미약한 양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부록 1)의 모델 3), 고강도 분쟁 개시에 대한 모델의 경우 ‘향후 대칭’(*symmetry_exp*)은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부록 1)의 모델 4). 이는 현저성과 대칭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낳을 것이라는 예상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며, 특히 고강도 분쟁 개시 모델에서 대칭성 기대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경제의존의 대칭성 증가는 두 국가의 경제규모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

을 반영한 것으로 힘의 압도적 우위가 사라지는 상황이 결국 분쟁 개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냉전 종식 후 안보갈등에서 경제변수의 영향은 보다 뚜렷해졌다. 마지막으로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가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전략적 라이벌(*rivalry*)과 동맹(*ally*) 변수는 탈냉전기(1991~2000년)와 비교하여 냉전기(1950~2000년)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동맹의 경우 탈냉전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드러났다. 경제협력의 현저성은 탈냉전기에는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냉전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칭성 변수는 두 시기 모두 음의 영향력을 가지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서 계수의 절대값은 증가하였고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전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양극 구도가 와해되자 경제변수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IV 결론과 전망

동아시아는 경제협력은 심화되었지만 안보갈등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동아시아만의 예외적 모습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협력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종종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통하여 안보갈등의 빌미를 제공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는 무역의존의 현저성과 비대칭성이 동시에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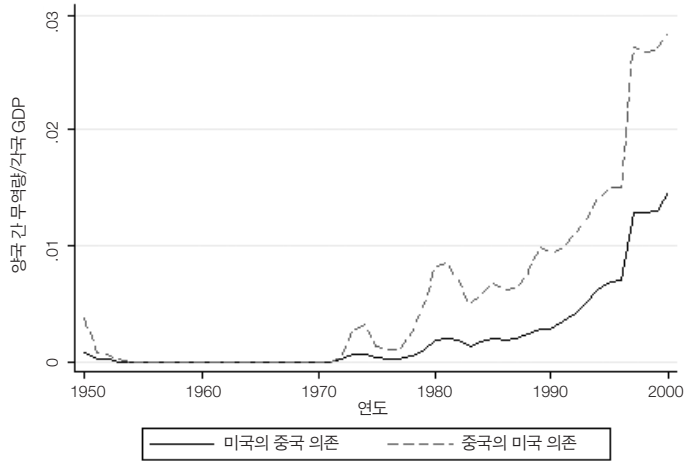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과 별도로 미중, 중일, 남북한 등 역사적·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해소되지 않은 채 탈냉전기에 들어서 안보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아시아 안보갈등은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완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긍정적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주요 라이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6〉 참조),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저성에서 1970년 중후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대미 의존 정도는 미국의 대중 의존 정도를 항상 앞섰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다소 심화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GDP는 1990년에는 미국 GDP의 6%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11.6%, 2010년 39.6%, 2013년 55%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 있으면 미국 GDP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대로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면 양국의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은 거꾸로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⁹ 코퍼랜드는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서 경제력의 전이가 일어난 후 군사력의 전이가 일어나기 전 시기가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 일어나기

9 이근욱은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비대칭 경제협력을 활용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Le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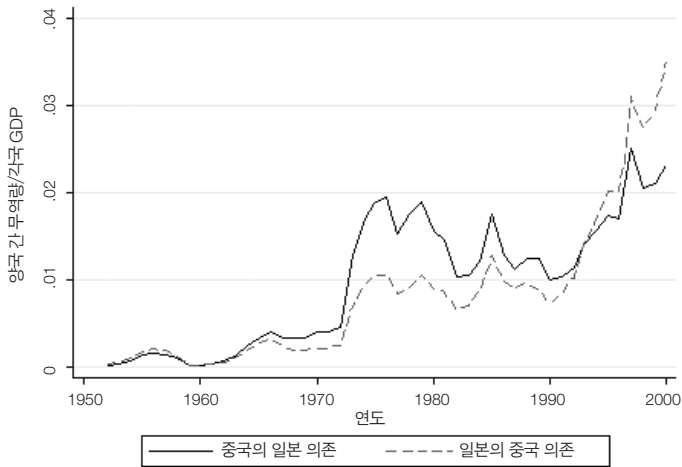
좋은 환경이라고 지적하였다(Copeland 2000, 5-6). 미국의 대중 의존이 중국의 대미 의존보다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취약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경우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현재보다 높다고 예상된다. 달리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력 전이는 본격적인 양국 간 정치·안보갈등의 시작을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동아시아 라이벌 관계인 중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미국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 역시 1970년대부터 경제협력의 현저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일 의존도가 일본의 대중 의존도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의존도가 중국의 의존도를 앞이기 시작했다. 즉, 실질 GDP 기준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경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

규모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양국의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일본이 대중 균형 전략을 강화시키고,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국의 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남북한관계는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모습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2000년대에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냉각기에 들어섰다. 지난 남북한 경제협력을 돌아볼 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막지 못한 점은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이 가지는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의 북중관계에서 드러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는 상대적 약국으로 하여금 취약성을 의식하여 상대적 강국에 대한 경계심리를 발동하게

하며, 상대적 강국은 상대적 약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 속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관계의 경제협력 방향은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개방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북한 경제특구 활성화에 한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참여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국제화 노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서 세계경제에 편입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 개방과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양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여부가 아니라 경제협력의 형태에 대한 전략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부록 1. 희귀 사건 로짓 분석 I

DV: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ll MIDs	Fatal MIDs	All MIDs	Fatal MIDs
	$\frac{d}{se}$	$\frac{d}{se}$	$\frac{d}{se}$	$\frac{d}{se}$
<i>saliency</i>	-10.384 **	-70.571 ***	-9.203 **	-77.443 **
	4.393	23.391	4.274	30.636
<i>symmetry</i>	-1.88 *	-10.28 ***	-1.45	-15.06 ***
	1.04	3.18	1.21	5.64
<i>saliency_exp</i>			6.E-06 ***	1.E-04
			1.E-06	7.E-04
<i>symmetry_exp</i>			0.16	36.52 ***
			0.13	1.02
<i>rivalry</i>	1.39 ***	1.57 ***	1.11 ***	1.38 ***
	0.15	0.27	0.14	0.28
<i>capacity ratio</i>	-0.04	-0.14	-0.03	-0.15
	0.04	0.09	0.04	0.09
<i>ally</i>	-0.35 ***	-0.61 **	-0.45 ***	-0.74 ***
	0.11	0.25	0.11	0.25
<i>democracy_low</i>	-0.01		-6.E-04	0.01
	0.01	0.02	0.01	0.02
<i>democracy_high</i>	0.03 ***	0.02	0.02 ***	0.02
	0.01	0.02	0.01	0.02
<i>border</i>	0.50 ***	1.35 ***	0.43 ***	1.58 ***
	0.14	0.32	0.12	0.32
<i>distance</i>	2.E-04 **		2.E-04 **	-2.E-04
	1.E-04		9.E-05	2.E-04
<i>(peace years)</i>	-0.20 ***	-0.28 ***	-0.23 ***	-0.27 ***
	0.02	0.04	0.03	0.05
<i>(peace years)²</i>	0.01 ***	0.01 ***	0.01 ***	0.01 ***
	1.E-03	2.E-03	1.E-03	2.E-03
<i>(peace years)³</i>	-3.E-05 ***	-7.E-05 ***	-4.E-05 ***	-7.E-05 ***
	1.E-05	3.E-05	1.E-05	2.E-05
Constant	-0.65	6.16 *	-0.47	10.97 *
	1.07	3.39	1.23	5.83
N	16756	16756	14491	14491

Note: *.10, **.05,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c1's COW country code*1000+c2's COW country code).

부록 2. 회귀 사건 로짓 분석 II

Region:	Model 1	Model 5	Model 6	Model 7
	World	East Asia	Asia	Non-East Asia
	$\frac{d}{se}$	$\frac{d}{se}$	$\frac{d}{se}$	$\frac{d}{se}$
<i>saliency</i>	-10.384 **	-59.39 ***	-9.96 **	-10.59 **
	4.393	20.51	6.33	5.03
<i>symmetry</i>	-1.88 *	-12.05	-0.04	-1.55
	1.04	7.54	5.47	1.42
<i>rivalry</i>	1.39 ***	1.91 ***	0.91 ***	1.34 ***
	0.15	0.16	0.35	0.15
<i>capacity ratio</i>	-0.04	-0.31	-0.16	-0.03
	0.04	0.13	0.13	0.05
<i>ally</i>	-0.35 ***	-0.28	0.52 *	-0.30 ***
	0.11	0.43	0.27	0.12
<i>democracy_low</i>	-0.01	0.10 ***	-0.01	-0.01
	0.01	0.02	0.02	0.01
<i>democracy_high</i>	0.03 ***	0.02	0.05 *	0.03 ***
	0.01	0.02	0.03	0.01
<i>border</i>	0.50 ***	0.09	0.65	0.69 ***
	0.14	0.45	0.44	0.14
<i>distance</i>	2.E-04 **	-4.E-04	-5.E-04 *	3.E-04 ***
	1.E-04	4.E-04	3.E-04	1.E-04
<i>(peace years)</i>	-0.20 ***	-0.19	-0.47 ***	-0.19 ***
	0.02	0.13	0.06	0.02
<i>(peace years)^2</i>	0.01 ***	0.01	0.03 ***	4.E-03 ***
	1.E-03	0.01	0.01	1.E-03
<i>(peace years)^3</i>	-3.E-05 ***	-5.E-05	-4.E-04 ***	-3.E-05 ***
	1.E-05	2.E-04	1.E-04	1.E-05
Constant	-0.65	12.29	-1.01	-1.24
	1.07	7.59	5.50	1.43
N	16756	383	1698	16373

Note: *.10, **.05,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c1's COW country code*1000+c2's COW country code).

부록 3. 회귀 사건 로짓 분석 III

Period:	Model 1	Model 2	Model 3
	1950-2000	1950-1990	1991-2000
	$\frac{d}{se}$	$\frac{d}{se}$	$\frac{d}{se}$
<i>salience</i>	-10.38 **	-14.84	-8.43
	4.39	9.70	3.93
<i>symmetry</i>	-1.88 *	-2.24 *	-4.90 **
	1.04	1.27	2.04
<i>rivalry</i>	1.39 ***	1.46 ***	1.23 ***
	0.15	0.17	0.24
<i>capacity ratio</i>	-0.04	-0.01	-0.14 *
	0.04	0.05	0.07
<i>ally</i>	-0.35 ***	-0.43 ***	-0.09
	0.11	0.14	0.20
<i>democracy_low</i>	-0.01	-0.02	-2.E-03
	0.01	0.01	0.02
<i>democracy_high</i>	0.03 ***	0.03 ***	0.02
	0.01	0.01	0.02
<i>border</i>	0.50 ***	0.48 ***	0.53 **
	0.14	0.16	0.22
<i>distance</i>	2.E-04 **	2.E-04 **	2.E-04 *
	1.E-04	1.E-04	1.E-04
<i>(peace years)</i>	-0.20 ***	-0.20 ***	-0.19 ***
	0.02	0.03	0.05
<i>(peace years)^2</i>	0.01 ***	0.01 ***	5.E-03 *
	1.E-03	1.E-03	3.E-03
<i>(peace years)^3</i>	-3.E-05 ***	-3.E-05 ***	-4.E-05
	1.E-05	1.E-05	3.E-05
Constant	-0.65	-0.37	2.59
	1.07	1.36	2.10
N	16756	12625	4131

Note: *.10, **.05,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d's COW country code*1000+c2's COW country code).

참고문헌

- 정성철. 2013. “관심 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389-406.
- Barbieri, Katherine. 2002. *The Liberal Illusion: Does Trade Promote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ueno de Mesquita, Bruce, James D. Morrow, Randolph M. Siverson and Alastair Smith. 1999.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4, 791-807.
- Copeland, Dale C. 1996.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A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5-41.
- _____. 1999. “Trade Expectations and the Outbreak of Peace: Detente 1970-74 and the End of the Cold War 1985-91.” *Security Studies*, Vol. 9, No. 1-2, 15-58.
- _____. 2000.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Future of U.S.-Chinese Relations.”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323-35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A Tragic Choice: Japanese Preventive Motivations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7, No. 1, 116-126.
- Farber, Henry S. and Joanne Gowa. 1995. “Politics and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2, 123-146.
- Friedberg, Aaron L. 1993/94.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5-33.
- Gartzke, Erik. 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166-191.
- Gartzke, Erik and Quan Li. 2003. “Measure for Measure: Concept Operationalization and the Trade Interdependence-Conflict Debat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0, No. 5, 553-571.
- Ghosn, Faten, Glenn Palmer and Stuart Bremer. 2004. “The MID3 Data Set, 1993-2001: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133-154.
- Grieco, Joseph M.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485-507.

- Hegre, Håvard,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2010. "Trade Does Promote Pe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 763-774.
- Jung, Sung Chul. 2014. "Searching for Non-aggressive Targets: Which States Attract Diversionary Actio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1, No. 6, 755-766.
- King, Gary and Langche Zeng. 2001a. "Logistic Regression in Rare Events Data." *Political Analysis*, Vol. 9, No. 2, 137-163.
- _____. 2001b. "Explaining Rare Even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3, 693-715.
- Lee, Geunwook. 2014. "The Merchants of Shanghai, the Mandarins of Beij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2(Special), 79-98.
- Levy, Jack S. 1989.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 Mansfield, Edward D. and Jack Snyder. 1995. "Democratization and the Danger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5-38.
- _____. 2005. *Electing to Fight: Why Emerging Democracies Go to War*. Cambridge: MIT Press.
- Maaz, Zeev and Bruce Russett. 1993.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3, 624-638.
- Narang, Vipin and Rebecca M. Nelson. 2009. "Who Are These Belligerent Democratizers? Reassessing the Impact of Democratization on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3, No. 2, 357-379.
- Papayouanou, Paul A. 1997.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1, 113-140.
- Rasler, Karen and William R. Thompson. 2004. "The Democratic Peace and a Sequential, Reciprocal, Causal Arrow Hypothe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7, No. 8, 879-908.
- Rosecrance, Richard N. 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2003[1995].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olingen, Etel. 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Restrai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2, 126-169.
- Streich, Philip and Jack S. Levy. 2007. "Time Horizons, Discounting, and Intertemporal Choi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2, 199-226.

Thompson, William R. and David R. Dreyer. 2012. *Handbook of International Rivalries: 1494-2010*. Los Angeles: Sage.

Waltz, Kenneth N. 1970.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Charles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205-223. Cambridge: MIT Press.

Wolf, Reinhard, Erich Weede, Andrew J. Enterline, Edward D. Mansfield and Jack Snyder. 1996. "Correspondence: Democratization and the Danger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176-207.

필자 소개

정성철 Jung, Sung Chul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사, 미국 럿거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Searching for Non-aggressive Targets: Which States Attract Diversionary
Actions?", "Foreign Targets and Diversionary Conflict.", "Democratization and
Alliance Commitment."

이메일 sungchul.jung@gmail.com